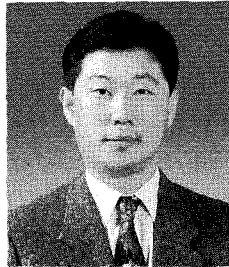


육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자

다 사다난했던 2000년이 가고 희망의 신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역시 우리 양계업계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변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아 전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 역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산업의 경우 생존자체가 위태로울 만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은 미래의 농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1세기 지구촌 농축산업의 모습을 그려보면 첫째, 그 동안의 단순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위주의 농업(Agriculture)에서 벗어나 농축산물의 생산은 물론 수집, 가공, 유통, 무역, 농업설비 등 연관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농식품산업(Agribusiness)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단계에 머무는 한 원자재 공급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김 홍 국
(주)하림 대표이사
(사)한국계육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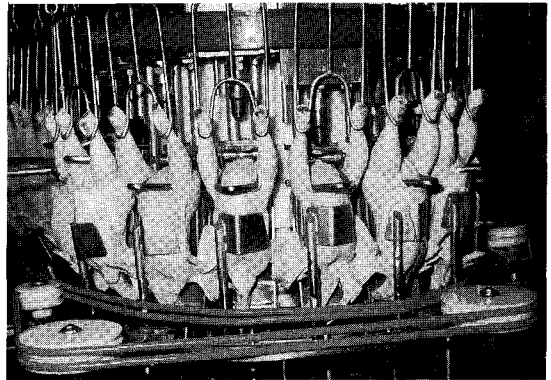
못하며 직접 연관산업까지를 관장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비로소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아울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축산물의 60% 이상을 식음료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일반가정의 주방크기는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식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호주에서는 이미 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바꾸고 농업과 식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농민의 정의가 그 동안 단순 육체노동자에서 현대농업이 설비집약적인 대량생산체제로 발전하면서 엔지니어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짓지' 하는 식으로는 농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인재가 농업분야에 들어오느냐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셋째, 농업시장의 중심이 그 동안 미국, 호주 등 땅이 넓고 기름진 지역에서 주변에 좋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동이 예상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근에 독일을 비롯한 EU시장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고의 농축산물 수출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넷째, 21세기 농민은 그 동안의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사전에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생산, 가공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앞으로의 농축산업은 품목별 농기업형태로 농업구조가 재편되고 집단화, 규모화된 수직 통합경영시스템이 산업전반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협동조합은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시장에서 타 조합 및 민간농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조합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일곱째, 앞으로는 도시근로자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농촌에 들어와 투자하는 기업가적 사고로 농업을 경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식품산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도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농업을 식품산업과 통합할 경우 농업, 농업인의 입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식품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때 농업발전이 가능해지며 농민 역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농축산업은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앞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입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각 나라마다 경쟁력 있는 품목위로 주로 특화될 것이 예상되며 각 개별품목의 자급도는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전체 농업무역수지의 흑자여부에 따라 자급도가 매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식량의 개념



이 쌀을 중심으로 한 곡류에서 축산물, 야채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먹거리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8%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식량자급율이 25%에 불과하고 농업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농업은 날이 갈수록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경쟁력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전체적인 농업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식량자급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경우 우리처럼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축산물, 화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을 통해 연간 150억 달러의 농업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를 포함한 농축산업계가 설비집약적인 기술우위 농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고 특히 이웃에 독일을 비롯한 EU라는 좋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가인 일본과 21세기 최대 농산물 소비시장이 될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수출지향적인 농업을 전개할 경우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육계업의 경우 설비집약적인 기술우위 농업이 가능한 품목중의 하나로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게 되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현재도 우리 닭 생산원가가 일본에 비해 30% 이상 낮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40% 이상까지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육계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역할을 분담하여 현안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경쟁국 수준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닭 생산성향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낙후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축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경쟁국과 달리 우리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농장신축시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과 함께 비용 역시 많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축사를 농업용시설로 인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자유롭게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히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ND 미발생이 전제조건이나 우리 경우 법정전염병인 ND의 살처분보상이 안되고 있어 질병확산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부담이 되어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세금인하, 전기 및 가스관련 규제 완화,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확대, 계열업체의 중소기업인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경쟁국처럼 기업경영방식인 수직 통합경영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다수의 소규모 농가를 소수의 농기업 형태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육계사육농가가 3만호에 달하나 50여개의 계열업체와 계약생산체제를 맺고 있어 실제 미국 육계산업은 50여개의 닭 생산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50여 계열업체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산하 계열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최대 경쟁국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상대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한 결과 육계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과거 절대평가방식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데 비해 상대평가 방식은 사육농가 역시 전에 비해 여러가지면에서 유리하면서도 생산성향상을 통한 육계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해져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속히 전업계가 이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 경쟁국에 비해 크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병아리가 있다. 현재 우리 병아리 생산원가가 미국에 비해 마리당 100원 이상 높은 실정으로 종계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에 들어간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가 우리 닭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중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양계**